

광양시 포스트 코로나 선제대응 성과

1·2차 지원금 경제위기 극복 마중물
국비 확보·공모 시상금 역대 최고
34개 기업 1조 3742억원 투자유치
2차전지 산업 중심도시 육성 박차



정현복 광양시장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생활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추진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 광양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4월 전남 지역 최초로 1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전 시민에게 20만원씩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광양시민 모두에게 신속하게 지급한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고, 실질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실제로 긴급재난생활비가 지급된 첫 주부터 많은 시민들이 마트, 상점, 음식점 등에서 지역상품권으로 결제했고, 그간 줄어들었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됐다

올해 8월에는 '2차 긴급재난생활비'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했다. 9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과 이어지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다행인 것은 지역경제가 활로를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의 예산확보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양시는 국비 예산 4568억원과 공모·시상 사업비 1465억원을 확보하는 등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으며, 기업 체감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34개 기업과 1조 3742억원의 투자유치와 MOU를 체결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성과 경제를 회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이차전지와 수소산업, 소재부품산업 등을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양성해 제2의 경제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HY 클린 메탈', '포스코 리튬솔루션'의 트로이카 체제를 통

해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금속가공과 화학소재 산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만든다는 구상도 세웠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시민, 의료진, 공직자 등 각 계각층이 한마음 한뜻이 돼 방역을 강화하고 철저히 위생수칙을 지켜준 덕분에 위기상황을 극복했다"며 "시민과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왔던 만큼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선배들이 쓴 여순항쟁 학살사건 소설 순천 송산초 학생들이 연극 무대 올린다

5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공연

순천 초등학교 학생들이 2019년 선배들이 쓴 소설을 연극무대에 올려 주목을 끌고 있다.

순천 송산초등학교는 5일 오후 5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공연장에서 여순사건을 주제로 한 '잊을 수 없는 과거'를 연극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잊을 수 없는 과거'는 지난 2019년 송산초 6학년 학생들이 여순항쟁 당시 낙안면 신전마을에서 있었던 학살사건을 모티브로 쓴 소설이다.

송산초 학생들은 선배들의 소설을 공연하기 위해 '극단 1949'를 만들고, 올해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맞아 연극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순천시, 순천교육지원청,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의 지원과 지역 연극인의 지도로 지난 8월 방학부터 연습을 시작했다.

연극의 주 무대인 낙안 신전마을의 유족들과 매표하고 학생 등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과 관람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관람희망자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무료 예약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공연을 통해 학생들이 여순항쟁을 이해하고 지역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 이 될 것"이라며 "더욱 많은 시민들이 여순항쟁 의미를 생각하고 평화의 마음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이 연극을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1회 공연에 그치지 않고, 여순사건 유족을 모시고 특별공연을 펼치는 등 확대할 계획이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단계적 일상회복' 맞아 관광종합대책반 운영 연장

15개반 65명 주말에도 현장근무

여수시가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되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관광 종합대책반을 연장 운영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여수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10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관광 종합대책반'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관광종합대책반은 상황반, 시민불편 대책반, 교통대책반, 식품위생 대책반, 공중화장실 대책반 등 15개 반으로 구성돼 13개의 부서 공무원 30명

을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 35명이 투입된다.

대책반 주요 임무인 관광 불편사항 처리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 현장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50명의 방역관리요원으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는 주요 관광지 22개소에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에도 꼭 지켜야 할 핵심 방역 수칙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개편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그동안 침체한 관광업

계의 어려움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튼튼한 방역체계가 필요한 만큼 관광업계는 물론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방역수칙 준수에 반드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달 19일 관광시설 관계자와 시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위드 코로나' 대비 방역 대책 회의를 열고 민·관이 손잡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의견 공유와 시설 방역의 예로사항을 정취하는 등 변화하는 관광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유근기 곡성군수 등 관계자들이 곡성멜론 복합체험센터 멜롱살롱 개관을 알리는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곡성군, 멜론체험 테마카페 '멜롱살롱' 오픈

멜론을 테마로한 국내 유일의 체험 카페인 '멜롱살롱'이 곡성에 문을 열었다.

곡성멜론 복합체험센터 멜롱살롱에서는 곡성산 멜론 시그니처 음료를 즐기면서 다양한 멜론 체험도 할 수 있다. 낫과 오래된 멜론 저장 창고를 리모델링해 테마카페로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카페 주변에는 멜론을 직접 재배하는 멜론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 있는 농촌 카페에서 넉넉하게 여유와 힐링을 누리기에 좋다.

무엇보다 멜론 생산 현지에 있는 카페만큼 당일 수확한 신선한 멜론과 딸기를 음료와 디저트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체험장에서는 멜론빙수, 멜론초콜릿, 멜론잡살

떡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 맛있는 멜론 고르기, 품종별 멜론 시식하기 등을 통해 멜론에 대해 즐겁게 알아보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곡성군은 멜롱살롱이 곡성멜론을 관광상품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멜롱살롱 오픈을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곡성멜론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인지도를 높여겠다는 전략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멜롱살롱이 곡성멜론 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키위 생산 전국 1위 보성군 19~20일 키위축제

전국 키위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보성군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최초로 보성키위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제1회 보성키위축제'는 키위농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성키위축제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리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오프라인 행사로는 규모를 최소화해 선포식, 축하공연, 드라이브스루 등 필수 프로그램만 진행할 예정이다. 선포식은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송출된다. 키위 특별 할인 판매는 고속도로 보성녹차휴게소 상·하행선에서 실시되며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동안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를 통해 특판 행사를 진행하며 보성키위축제 공식 홈페이지에 10% 할인판매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보성키위축제를 보고 즐길 수 있다.

보성키위는 지난 1980년 초부터 조성면 지역에 과원이 조성되기 시작해 40년이 넘는 생산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는 보성군 전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키위 재배면적은 252ha로 전국 시·군단위 중 재배면적이 가장 넓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